

Hawthorne의 역사와 사회변화에 대한 인식: 그의 단편소설들을 중심으로*

김 용 수

I

Nathaniel Hawthorne의 주요 장편 및 단편소설들은 과거와 당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시·공적 배경을 사용했지만, 가장 Hawthorne적이요 그의 강점이 나타난 작품들이라면 단연 그 배경이 미국의 과거 역사를 바탕으로 한 것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가 특히 관심을 보인 시기는 미국의 식민지 시절 과거, 특정하게는 자신의 조상이 직접 연루된 청교도들의 역사였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죄의 본질과 다양한 해석, 그리고 영향 등에 관해 깊이 탐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는 이 작품들 속에서 과거 청교도 조상들의 미국사회 형성 및 발달과정에서의 역할, 그들이 후손들에 미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논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우회적으로 당대의 사회변화에 대한 작가 자

* 본 논문은 2001년 1월 31일부터 2월 3일까지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영어영문학회 학술발표회에서 “호손과 역사”란 주제로 가진 세미나에서 “호손의 단편소설들에 나타난 역사성”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던 것을 증보, 제정리한 것임.

신의 견해와 인식을 제시했다.

이러한 그의 미국 식민지 시절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은 그의 주요 작품 활동 시기였던 19세기 중반에 미국사회가 겪은 급속한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과거 식민지 조상들과 자신의 동시대인들이 성격은 다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 유사한 사회적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에 직면했었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수용 및 적응 등에서 어떤 공통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식민지인들이나 자신의 동시대인들 모두 상당 기간 큰 변화 없는 사회구조 혹은 규범속에서 안주하다가 그 구조와 가치체계에 있어서 기존의 것과는 크게 다른 사회로의 이동이 도래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대처 혹은 극복하려는 모습들이 지도층과 일반대중들로 대별되는 두 계층들에서 과거나 당대 모두 유사함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1830년대 초기 단편들에서부터 마지막 작품인 1860년의 *The Marble Faun*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요 작품들에서 꾸준히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이들 일련의 주요 작품들을 통해 그가 독자들에게 일관되게 보여준 것은, 식민지 시대나 당대 사회를 막론하고 급격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요구에 대해 기존의 질서와 틀을 지키려는 기득권층 혹은 지도자 계급과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 일반대중 사이에서 그가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은 중립적 태도를 견지한 모습이다. 즉 그는 과거 식민지 시절 청교도들에 대한 역사적 판단에서, 그들의 숨 막힐 듯한 엄격함과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지녔던 반면에 그들이 미국사회가 봉건주의에 바탕을 둔 식민지 사회에서 대중민주주의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반면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남북전쟁을 분수령으로 급속하게 산업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을 밟던 19세기 중엽의 미국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대중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하게 그 기틀을 다지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의 중심축이 정치·경제적으로 통치자나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기득권층에서 일반 대중들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작가는 그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중들이 요구하는 모든 사회적 장치와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 욕구에 대해서는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위

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인식하고 대체로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Charles Swann은 *Nathaniel Hawthorne: Tradition and Revolution*이란 그의 책에서, 작가 Hawthorne이 전통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그 권위를 찬양하는 것은 거부했고, 과거와의 혁명적 단절에 대한 욕구에는 매료되었으면서도 동시에 이에 대한 대가가 너무도 크며 결국 원래의 혁명적 변화에 대한 윤리적 충동은 전도, 부패, 왜곡 혹은 파괴된다고 판단했다고 평한다(4). 이러한 작가의 역사 및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그의 장편들인 *The Scarlet Letter*,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나 *The Marble Faun* 등을 중심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¹⁾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작가가 초기에 발표한 1830년대의 단편들, 특히 식민지 시절의 청교도들을 다룬 단편들을 중심으로 과거 청교도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 어떤 인식을 드러냈고 당대 미국사회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견지했는지를 분석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Hawthorne의 단편들 중 실제 미국 식민지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실명의 인물들이 등장한 것들로는 “The Gray Champion,” “The Maypole of Merry Mount,” “Endicott and the Red Cross” 등을 들 수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이들 모두 Hawthorne의 첫 단편집인 *Twice-Told Tales*에 집중 수록돼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식민지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청교도 지도자의 모습은 아마 John Endicott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역사적 실존인물로서, 청교도들의 전형적 특징인 완고한 신앙심, 권위주의적 태도, 단호함을 지녔고, 계율 파괴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가혹한 징계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에 대한 작가의 역사적 평가는 “Endicott and the Red Cross”나 “The May-Pole of Merry Mount”에서 보듯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며, 이들 작품에서 Hawthorne은 그의

1) 19세기 중반에 대한 작가의 인식에 대해서는 필자가 『호손연구』 7호(2000)에 게재한 줄고 “전환기 미국 사회와 Hawthorne의 시대 인식: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를 중심으로”를 참조 바람.

청교도 지도자로서의 종교적 혹은 정치적 태도가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배치되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모순점을 부각시킨다. 즉 종교 지도자로서의 입장에 섰을 때의 Endicott은 사회 구성원들 모두에게 청교도의 엄격한 계율과 도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처벌을 감수하도록 하고 그가 직접 그 단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그가 식민지의 피지배자로서의 입장에 설 때면 그는 종교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고 정치적으로는 영국 압제자에 대한 결연한 항거 정신을 보여주는 혁명가적 인물로 그려진다. 즉 이들 단편들을 통해 드러나는 그는 지배자이면서 피지배자인 이중적 입장에 동시에 놓이게 되는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가 취하는 태도도 이중적이면서 서로 모순이 됨을 드러내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를 포함한 청교도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기존 봉건 지배 체제에 대한 굳건한 저항정신은 미국국민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 사회 추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긍정적인 면들이 부각되며, 그 정신은 이후 단편들인 “The Gray Champion”과 “My Kinsman, Major Molineux”에 나타나는 식민지인들의 영국 정부의 압제에 대한 항거의 모습으로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Endicott and the Red Cross”의 도입부에서 작가는 이 단편의 배경이 식민지 시절 New England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인 영국 Charles 1세와 식민지인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가던 시점임을 밝힌다. 그리고 당시 Canterbury 대주교였던 Laud가 청교도 식민지의 종교문제까지도 통제하려 들고, 이에 따라 Plymouth와 Massachusetts가 황폐해질 위기에 처해있었다는 설명을 첨가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Endicott은 군사들의 위압적 훈련모습을 대중 앞에서 보여주며 그 권위를 과시하는데, 이 곳으로 달려온 Roger Williams로부터 전해 받은 Winthrop 총독의 서신을 통해 영국 왕 Charles 1세와 Laud 대주교의 음모를 알게 된다. 즉, 그들은 식민지에 감독교(Episcopacy)를 도입하고 로마 교황에게 New England를 넘기려 총독을 새로 파견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인들이 청교도로서의 종교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된 근본 이유를 부정하는 심각한 도전이었고, 이를 알게 된 Endicott은 분개하여 군인들과 모여든 군중들을

대상으로 힘차고 감동적인 연설을 행한다. 그는 그들이 이 곳에 온 것이 “우리의 시민권을 향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우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위한 것 아니었느냐”고 강변하며(*Twice-Told Tales* 439) 흥분하여 영국 국기 가운데의 십자 문양을 찢어냄으로써 용기 있는 항거의 정신을 보여 준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올곧은 투쟁과 항거의 모습은 “The Gray Champion”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시대배경은 “Endicott and the Red Cross”보다 반세기 정도 뒤인 1689년 4월의 어느 오후이다. 작품 첫머리에서 식민지 독재자의 전형으로 소개되는 Edmund Andros 경이 이끄는 총독 근위대가 위압적으로 행진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 글의 화자(話者)는 이 장면을 당시의 New England 식민정부가 “사물들의 본성과 민중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은 정부의 기형”을 보여주는 풍경이라고 말한다(*Twice-Told Tales* 13). 이 위풍당당한 영국의 앞잡이들의 행진대열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Gray Champion이란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 막아서는데, 그는 근위대를 향해 압제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식민지인들의 목소리가 잠들어있던 자신을 괴롭혀 주님께 하소연하여 지하에서 나와 이렇게 나섰다고 그들에게 당장 물러가라고 호통을 친다. 그는 식민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한 성인의 이미지로서 “New England의 반전제적 정신을 구현하는”(Levine 121)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청교도들의 압제자에 대한 정의롭고 강직한 긍정적 이미지의 이면에는 이에 수반하는 가혹함과 냉정함, 심지어는 위선까지도 숨어있음이 발견된다. “Endicott and the Red Cross”와 “May-Pole of the Merry Mount”에서 공통적으로 부각되는 Endicott의 첫 이미지는 권위주의적 강인함과 엄격함이다. 앞의 작품에서 화자가 Endicott을 처음 소개할 때 그는 “엄격하고 단호한 표정을 지닌 사람”으로, 그 인상은 흉갑 위로 흘러내린 회색 수염으로 인해 더욱 강렬해진다고 말한다(*Twice-Told Tales* 434). 그의 차갑게 번쩍이는 갑옷 위로 예배당의 전면이 거울처럼 비치는데, 그 예배당의 문에는 늑대의 머리가 피를 흘리며

걸려있다. 이 끔찍하고도 삭막한 장면은 척박한 식민지의 환경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Bush, Jr.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늑대의 머리는 성경에 나오는 “양의 털을 쓴 늑대”를 연상케 하며, 이 이미지는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숲 속 야수에 대한 경고로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Salem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던 “교활한 의견차이의 목소리”를 경계하는 지도자층의 경고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 있다. Endicott은 지도자층의 권위에 대항하는 어떠한 견해나 행동도 냉혹하게 단죄하는 강력한 리더의 모습임을 이 장면은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Endicott의 이미지와 그를 둘러싼 식민지 환경의 살벌함은 그 공동체가 보여주는 더욱 스산한 풍경들과 묘한 조화를 이룬다. 예배당 앞에는 태형 기둥이 을씨년스럽게 서있고, 그 주변에는 이교도로 판정돼 목에 칼을 쓰고 있는 사람, 영국 왕을 찬미한 죄로 차꼬를 차고 있는 왕당파, 청교도 지도자들의 허락 없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유포한 죄로 “방종한 전도자”라는 팻말을 가슴에 달고 서있는 징벌을 당하는 남자, 교회 장로들을 험담한 죄로 혀를 집게로 물려 서 있는 아낙네 등이 등장한다. 이 죄인들을 지켜보는 군중들의 모습도 가히 충격적이다. 그들 중에는 죄에 대한 별로 귀가 잘려나간 사람, 뺨에 죄명의 머리글자가 낙인으로 찍힌 사람, 코가 꺾이고 그을려진 사람, 평생 밧줄을 목에 매고 살아야 하는 사람, *The Scarlet Letter*의 Hester Prynne을 연상케 하는 가슴에 ‘A’를 달고 살아야 하는 여인 등, 일시적 과오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은 자들이 상세하게 소개된다. 이 모두 어떤 일시적 일탈행위나 실수에 대해서도 용서를 모르는 가혹한 청교도 규범의 희생자이며, 그 지도자들의 권위의 정점에 Endicott이 서있는 것이다.

정직된 이 청교도 지도자의 모습은 “Endicott and the Red Cross”보다 1년 앞서 발표된 “The May-Pole of Merry Mount”에서도 거의 유사한데, 앞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권위적 도덕관을 구성원들에게 강요하고 일탈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응징을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여기서 화자는 5월제 기둥을 돌며 축제를 벌이는 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무장한 채 나타난 Endicott의 첫인상을 다음과 같이 그리

고 있다: “So stern was the energy of his aspect, that the whole man, visage, frame, and soul, seemed wrought of iron, gifted with life and thought, yet all of one substance with his head-piece and breast-plate. It was the Puritan of Puritans; it was Endicott himself!” (*Twice-Told Tales* 63). 또한 화자는 작품 전반에 걸쳐 Endicott과 그를 동반한 청교도 군인들의 이미지를 온화하고 밝은 이미지의 Merry Mount의 축연 참가자들과 대각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들의 무자비하고 냉혹한 면을 더욱 부각시킨다. Hoffman의 표현대로, 본질적으로 Edgar와 Edith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 이 단편에서 “Merrymounter들이 청교주의의 도덕적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청교도들은 분명히 5월제 기둥의 근간이 되는 사랑의 정신을 결여하고 있다”(45)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청교도들이 이 축연 참가자들을 혹독하게 다룬다. 즉 5월제 기둥을 돌며 Edgar와 Edith의 혼례식에 참여해 축하하는 Merry Mount의 사람들은 청교도들의 근엄하고 절제된 모습과 대비되며, 작가는 이들 두 부류에 대한 대조적 묘사를 통해 자연적 본능을 따르는 이교도들에 대해 은밀하게 더 호감을 보내는 것이다.

작가는 누군가 이 가면무도회를 즐기는 자들을 봤다면 신화에 등장하는 음주·향연의 신인 Comus의 무리 같아 보였을 것이지만, 이들을 몰래 지켜보던 청교도들은 이 가면을 쓴 자들을 그들이 어두운 황무지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믿는 악마들과 파멸한 영혼들에 비유했다고 말한다(56). 화자는 이후에도 청교도들의 삶을 심한 조롱조로 기술하는데, 이를테면 이들 Merry Mount의 축제 참가자들과 비교할 때 청교도들은 비밀모임을 갖되 여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세 시간이나 듣기 위해서이거나 늑대 머리나 인디언 머리 가죽을 벗겨오는 자에 보상을 걸기 위해서이고, “[청교도들의] 축제는 곧 금식일이요, 그들의 주된 여가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라고 하며, 또한 춤추는 젊은이나 처녀들은 도시행정위원의 고깃집 한 번이면 당장 경관에 의해 그 가벼운 발들에 차꼬가 채워질 것이고, 그들이 도는 5월제 기둥은 태형 기둥이 된다고 말한다(60). 이 축연 참가자들을 강제해산시킬 때 Endicott은 그들을 벌하는 방법으로 나무 기둥에 묶고 회초리로 때리거나 차꼬를 채워두라고 명하고 불로 지지거나 귀를

자르는 형벌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앞의 “Endicott and the Red Cross”의 예배당 앞에 모인 군중들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또한 이 지도자는 신랑 Edgar가 신부 대신 벌을 받겠다고 호소하자 오히려 여성에게 특별한 대우가 아닌 더 엄격한 규율이 적용돼야 한다고 힐난하기도 한다(65). 오월제 기둥을 이단의 육신적 쾌락의 상징으로 정의 내리고 가차 없이 칼로 내리쳐 부수는 Endicott의 모습에서 우리는 청교도 율법에 대한 자신의 믿음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는 청교도 지도자의 단호함을 본다. 이러한 화자의 서술들을 통해 독자는 두 세력간의 긴장 속에서 작가의 시선이 엄한 종교적 계율을 고집하는 Endicott 무리보다는 박해를 받는 자유분방한 인간적 모습을 지닌 Merry Mount의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기울어있음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Endicott을 비롯한 청교도들의 엄격한 신앙적 추구하고 이의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강압적 적용 사이에는 커다란 모순이 내재함을 발견한다. 즉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달픈 식민지 생활을 택했던 그들이 정작 자신들과 다른 종파의 자유로운 믿음이나 양심에 따른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 경직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Endicott and the Red Cross”에서 주인공이 대중 앞에서 영국정부의 부당한 종교적 구속과 정치적 장악 음모를 성토했으며 자신들의 양심에 따른 신앙을 지킬 권리를 강조할 때, 그의 가혹한 신앙관에 희생되어 “방종한 전도자”라는 팻말을 목에 걸고 벌을 받던 자가 “이것을 양심의 자유라고 부릅니까?”라고 비아냥거린다(*Twice-Told Tales* 439). 즉 구교를 강요하려는 영국 왕과 Laud 대주교를 향해 자신들의 청교주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는 Endicott이, 막상 이 신앙적 궤도를 달리하는 복음 전도자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오한 판단(*infallible judgment*)으로 재가를 받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려 들었다고 해서 치욕스런 팻말을 목에 걸고 서있도록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위의 “The May-Pole of Merry Mount”에서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May-Pole을 이교도의 쾌락 추구로 내몰아 칼로 내리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로운 추구와 통한다고 볼 수 있는 양심과 사교의 자유 추구라는 유사한 입장에 대해서 종교적·도덕적 편견의 잣대를 들이대어 재단

하고 응징하는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청교도들의 자가당착적 판단과 행동의 모습은 Hawthorne의 초기작인 “The Gentle Boy”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청교도들은 자신들과 신앙적 입장이 다른 퀘이커 교도들을 박해하고, 이로 인해 부모를 잃게 된 어린 소년을 몰래 돌보려는 어느 부부의 대화를 통해 제시되는 우려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작가가 이들의 경직되고 편협한 신앙관의 폐해와 무고한 자들의 희생에 대해 그 모순점을 드러내고 비판의 날을 들이대는 것을 볼 수 있다. 작가 자신의 조상들이 퀘이커 교도들에게 가했던 박해에 대한 일련의 부담감이 이 글에서도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이중적 모습들과 그것의 개인 및 사회에 대한 내적·외적 파급효과들을 다룬 Hawthorne의 단편들에 대해 Levine은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하는데, 즉 이 일련의 작품들이 그것들이 쓰인 1830년대 미국의 정치·경제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단편들을 통한 작가 Hawthorne의 사회적 의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In the context of the progressive historical typology of Hawthorne's colonial tales, Endicott's bold resistance portends the Gray Champion's, which leads toward the subversive ritual of “My Kinsman, Major Molineux” and then to the heroic Revolution—the spirit of which, to cast a positive light on nativist and revivalist activities of the 1830s, informs the revived republicanism among those of the post-Revolutionary, post-heroic generation. But “Endicott and the Red Cross” dramatizes as well just how easily countersubversive rhetoric can be exploited by those in power. As Hawthorne archly makes clear through Roger Williams's disapproval, Endicott taps into the pervasive fear of papal conquest in order to sustain his own power. With his imposition of strict disciplinary controls over religious nonconformists and other stigmatized dissenters, Endicott emerges as a native authoritarian affronted by foreign authoritarianism. The patriotic moral is that the two forms of authoritarianism differ; the darker moral lies in the likenesses. (122-23)

Levine에 따르면 183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기존 청교도 지도자들의 종교적 가치관을 축으로 한 사회체제가 점차 대중이 중심이 된 민주주의 사회체제로 대체되며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했고, 청교도 지도자들은 기득권 수호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과거 청교도들의 신앙이 당대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다는 긍정적 면을 역사적으로 부각시키려 시도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작가는 위의 작품들을 통해 그 지도층 논리의 어둡고 자기당착적인 면들도 함께 드러냄으로써 당대인들에게 청교도들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교도들의 신앙적 위선과 의식(外飾)의 모습은 역사적 실명(實名)을 쓰지 않은 Hawthorne의 다른 등장인물들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 인물들이 “The Man of Adamant: An Apologue”에서의 Richard Digby와 “Young Goodman Brown”의 주인공 Goodman Brown 같은 자들이다. Foeller-Pituch는 19세기 미국 작가들의 작품들 속의 고전 신화의 빈번한 사용에 대해 모호한 유산으로 정의하고 분석한 그의 글에서, 미국 낭만주의 시대 작가들은 새로운 땅 미국에서 그들의 작품 바탕이 될 고전 신화에 대한 갈망을 부분적으로는 이상향과 원시적인 보다 순수한 과거를 환기시킴으로써 채웠고, 특히 Melville이나 Hawthorne은 과거의 신화를 당대 사회와의 파격적인 대조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지적한다(102). 이는 위에 언급된 두 단편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즉 Digby와 Brown 둘 다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닫혀있는 신앙관을 지니고 이로 인해 현실의 악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죽어 가며, 이는 19세기 중엽 미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순응치 않았던 완고한 일부 계층에 대한 경고이자 비판으로 읽힐 수 있다.

“The Man of Adamant”는 부제가 말해주듯 하나의 우화이다. 이 작품 첫머리에서 주인공 Richard Digby는 종교적으로 암울하고 무자비했던 옛날 극히 편협한 구원의 계획과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등장한다.

In the old times of religious gloom and intolerance, lived Richard Digby,
the gloomiest and most intolerant of a stern brotherhood. His plan of

salvation was so narrow, that, like a plank in a tempestuous sea, it could avail no sinner but himself, who bestrode it triumphantly, and hurled anathemas against the wretches whom he saw struggling with the billows of eternal death. (The Snow-Image and Uncollected Tales 161)

이러한 완고하고 독단적인 신앙을 지녔기에 그는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홀로 “무덤 같은 동굴”에 은신하여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한다. 그는 동굴 천장에 맺힌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먹는데, 거기에 함유된 석회 성분은 육신을 굳게 만들므로 심장이 굳어가는 병을 지닌 그에게는 치명적이다. 은신한 지 사흘 째 되던 날 석양 무렵, 그가 종교적 편견에 빠지기 전 영국에서 그의 복음에 감동되어 개종했던 여인인 Mary Goffe가 그의 생명을 구하는 약을 가지고 동굴 입구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는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Mary를 저주하며 잔을 쳐서 떨어뜨린다. 화자는 전설에 따르면 이 순간 여인은 마지막 석양의 빛줄기와 함께 사라지고 그의 심장은 멎어버렸으며, Mary Goffe는 사실 영국에서 이미 수개월 전 죽어 교회에 묻혔다며 Mary가 아마 “순수한 신앙을 상징하는 환상의 유령”(168)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여기에 비춰 이 이야기를 성경적 우화로 해석할 때, Digby가 들어간 무덤 같은 동굴은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한 후 묻힌 돌무덤이요, 사흘 후에 나타난 Mary는 예수가 죽음 후 사흘 만에 부활할 때 나타나는 성령이며, Mary가 내민 잔은 부활과 영생의 잔이라 볼 수 있다. Digby가 잔을 쳐서 떨어뜨린 순간 빛줄기가 사라지는 것은 Digby가 마지막 구원의 희망마저 거부해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작가는 한 세기가 지난 후 이 동굴이 발견되었을 때 Digby의 모습은 극히 무서운 표정으로 모두를 물러서게 하는 듯한 자세라고 묘사하는데(168), 인간의 태생적 연약함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죽어간 Digby의 독단적 신앙관의 비극적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Digby와 유사하게 신앙적 편견과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치 않는 완고함으로 인해 스스로를 동료 인간들과의 교류로부터 고립시킨 채 죽어가는 인물은 “Young Goodman Brown”의 주인공이다. 잘 알려져 있듯 이 작품은 순수했던 어

는 젊은이가 악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막 시작하려는 성인 세계로의 입문 (initiation)에 관한 이야기로서, 흔히 성공적 입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My Kinsman, Major Molineux”의 Robin과 반대되는 실패한 경우로 종종 대비되곤 한다. Goodman Brown의 실패는 어쩌면 종교적 우월감을 넘어선 자만심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내 Faith와의 신혼 3개월 만에 자신의 믿음을 상징하는 이름을 지닌 아내를 시험하기 위해 숲 속 악마의 연회에 참가할 때 만류하는 아내를 뒤로 하면서 “이 하룻밤만 지나면 난 아내(믿음)의 치마를 붙잡고 천국까지 따라갈 것”(Mosses from an Old Manse 75)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그의 다짐과는 달리 숲 속에서 목격하는 풍경은 자신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마을사람들의 이면에 숨겨진 악의 본성들이다. 숲 속의 악마가 청교도 Brown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그의 조상과 마을사람들의 추악한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이다.

Brown을 안내하던 중년의 남자는 과거부터 그의 조상들을 잘 안다며, 구체적으로 케이커 여인을 채찍질하며 Salem의 거리를 끌고 다녔던 할아버지, 인디언들과의 전쟁 시 인디언 마을에 불을 질러 학살한 아버지를 도와왔다고 함으로써 Brown이 그 악의 속성을 대물림했음을 암시한다. 또한 그를 악마의 연회에 데려간 안내자가 참가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타인의 비밀스런 행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가 적시하는 마을사람들의 어두운 모습들은 음탕한 말을 자기 집 하녀에게 속삭이는 백발이 성성한 교회 장로, 미망인의 상복을 입으려 남편에게 독이 든 잔을 마시게 하여 죽어가는 순간 자신의 가슴에 안는 요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으려 서두르는 아직 수염도 안난 젊은이, 정원을 파 사생아를 몰래 매장하는 아리따운 처녀 등이다(87). Brown은 여태껏 경건한 외적으로 자신을 감싼 이들의 낮의 모습 이면에 이러한 악한 본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도 그 모임의 일원임을 목격하고 충격 속에 그 자리를 뛰쳐나와 숲 속을 헤매다 마을로 돌아온 후 그는 “엄숙한, 슬픔에 잠긴, 음울하게 사색적인”(89) 젊은이로 변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의 실재를 부정한다.

자신이 설정한 경건함의 기준으로 모든 주변 청교도들의 이면까지도 들여다 보는 시험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려던 Brown의 시도는 이와 같이 참담한 좌절과 자기 파멸로 귀결된다. Easterley는 이 단편을 눈물의 imagery의 맥락에서 분석한 그의 짧은 글에서, Brown의 실패는 결국 그가 눈물, 즉 타인에게 이들의 죄를 용서할 사랑과 동정심이 없고 자신에 대해선 깊은 신앙심에서 나오는 자신의 죄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라고 주장하고, 그가 악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른 청교도들을 불완전하고 유혹에 약한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의 단계에 이르거나 타 구성원들과의 생산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기회를 상실했다고 해석한다. 그가 이 경험 이후 보내는 무력한 나머지의 생은 결국 그가 속한 공동체 내의 청교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외적 경건 뒤에 어두운 비밀의 죄를 숨기고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바로 감춰진 위선적인 죄를 지닌 Brown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모르는 데서 오는 필연적 비극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Digby나 Brown은 자신들의 청교도적 교리나 원칙, 도덕률 등과 주변에서 목격한 현상간의 괴리로 인해 번민과 시험에 빠져 실패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Hawthorne은 이들처럼 자신이 신봉하고 지키는 기존 가치관이나 틀이 어느 순간 깨어질 때 그 절망적 경험을 넘어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 성공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인물을 드물게 제시했는데, 그가 “My Kinsman, Major Molineux”에서의 주인공 Robin이다. 이 단편에서 주인공이 겪는 특이한 경험은 사회나 개인의 삶에서 전환기를 맞게 될 때 드러나는 변화에 대한 불안심리와 그에 대한 반응 및 극복의 과정을 잘 드러내준다. 식민지 초기에 지배자 영국과의 갈등으로 총독을 비롯한 식민통치자들이 대중의 반발로 수난을 당하곤 하던 불안한 시기를 배경으로, 당시 영국의 힘을 상징하는 권세가인 당숙 Major Molineux를 찾아 시골 목사의 아들 Robin이 New England의 도시로 오는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소년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영국군 장교인 당숙의 힘을 빌려 권력의 중심부에 쉽게 진입하려는 야심에 찬 “영악한(cunning)” 소년이다. 그

가 밤에 부두에서 내려 당숙에게 안내해줄 사람을 찾는 과정은 순수와 세상에 어두운 무지의 상태에서 혼탁함과 경험의 사회로 진입하는 인생의 안내자를 구하는 과정이다.

낮선 땅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될 당숙을 찾는 과정은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에 대한 피지배자들의 태도를 눈여겨봐온 Robin에게는 아주 쉬울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예우를 받으리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위협과 조롱이 섞인 혼란스러운 경험이었다. 당숙의 거처를 묻는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헛기침으로 권위를 앞세우며 그를 위협하며 쫓아내는 노인, 묻기 위해 찾은 선술집에서 그를 체포하겠다고 위협하고 조롱하는 주인과 손님들, 집이 바로 당숙의 집이라는 거짓말로 안내하겠다고 유혹하는 어느 하녀, 늦은 밤에 돌아다니는 그를 부랑자로 몰아 차꼬를 채우겠다고 위협하는 야경꾼, 후에 당숙을 린치 하는 민중봉기의 대열에 앞장서는 얼굴을 붉은 색과 검은 색으로 칠한 남자 등이다. 그의 순조로운 기성 질서로의 진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예상을 벗어나는 난관에 봉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Robin이 맞닥뜨린 자들 중 헛기침하는 노인이나 야경꾼은 대중 위에 군림하는 사회의 권위와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특히 회색 가발과 코트, 비단 스타킹 차림에 변쩍이는 지팡이를 든 권위적인 차림과 표정의 노인은 구질서를 대표하는 Major Molineux를 Robin이 찾을 때 Molineux와 동일한 위상에 놓이는 것을 부인하며 헛기침을 하고, 이후 작품 말미에서의 그의 행동은 영국을 축으로 한 구질서와 권위가 무너지고 식민지 민중 중심의 새로운 질서와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불안한 사회 격변기에 재빨리 이에 영합하고 순응하려는 몸짓이다. Mendilow가 이 작품을 정치적 주도권의 소재 변화라는 견지에서 다룬 그의 글에서 지적하듯,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던 사회적·정신적 지도력의 붕괴에서 오는 공백은 대중여론이라는 새로운 비인격적 권위로 메워지게 되며 (130), 노인은 이 새로운 평등의 질서 속에서 과거의 권위를 재빨리 포기하고 대중 중심의 질서에의 편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그는 어찌면 자신과 비슷한 식민지 사회 지도자의 권위적 위치에서 대중에 의해 끌어내려진

Major Molineux가 온몸에 타르가 발라지고 거위깃털이 붙여진 채 치욕적인 린치를 당할 때, 자신은 Major와는 다르다는 차별성을 드러내고 군중의 환심을 사고자 제일 먼저 Molineux를 향해 조롱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인의 웃음에 전염된 모든 마을사람들이 따라 웃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Robin마저 자신의 당숙을 향해 그 누구보다도 크게 웃게 된다. 노인은 Molineux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보곤 비겁할 만큼 신속하게 자신의 권위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포기하고 폭력적 군중심리가 지배하는 여론의 한 가운데에 들어가 새로운 대중 질서에 영악하게 이부하고 편입되길 희망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Digby나 Brown과 비슷한 존재론적 위기에 처한 Robin은 그들처럼 새롭게 눈뜬 현실에 실망과 환멸을 느낀 나머지 자기 파멸로 이를 수도 있었다. 즉 식민지 시대에 영국 정부의 힘을 등에 업고 자신의 출세를 보장해줄 것으로 믿었던 당숙 Major Molineux가 민중봉기로 인해 몰락해 초라하게 수모를 당하는 모습 앞에서, 자신을 지켜줄 보호수단이라곤 약간의 돈이 든 지갑과 몽둥이가 전부였던 Robin은 Digby나 Brown처럼 쉽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 낙심과 절망 속에 생을 마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에겐 이 둘과 달리 이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삶으로 안내해줄 인생의 조언자인 어느 신사가 있었다. 이 장년의 신사는 Robin이 찾는 데 지쳐 교회 앞에서 고향에 두고 온 집과 가족을 그리며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 묵묵히 그의 사정을 들어주고 곁을 지킨다. 그 신사는 군중들이 Molineux를 조롱하며 겁에 질린 그를 향해 폭소를 터뜨리는 속에서도 유일하게 웃지 않으며, Robin이 어느 누구보다도 큰 웃음소리로 동참하는 영악한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다. 당숙의 형편을 그제야 깨닫고 실망감에 빠져 시골로 돌아가려 포구로 가는 길을 묻는 Robin에게 그 신사는 “네가 우리와 남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아마도 너 영악한 젊은이라서, 네 친척인 Major Molineux의 도움 없이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한다(*Mosses from an Old Manse* 231). 작가는 시대의 급류를 잘 타고 넘어가난 자만이 거기에 휩쓸려 희생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음을 Robin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Hawthorne의 일련의 작품들을 분석해보면, 그가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평등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것에는 확신을 가진 반면 사회변화의 속도에 대한 대처는 적극적이지도, 소극적이지도 않은 중도적 입장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대의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혁명적 변화의 선두에 서기보다는 순리에 거슬리지 않고 변화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한 그의 생각이 잘 읽히는 작품이 John Bunyan의 *Pilgrim's Progress*의 틀을 빌려 당대사회에 대한 시각을 드러낸 “The Celestial Railroad”이다. 그는 여기에서 빠르게 내달리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을 순례자들이 타고 가는 기차로 비유했는데, Mendilow의 지적처럼 기차는 Carlyle이 소위 “단어의 모든 외적 내적 의미에서 기계의 시대”라 일컬은 것을 상징하는, 예전의 확고부동한 것과는 분리되어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의 이미지를 전달한다(130). 화자는 한 편으로는 과거의 낡은 신앙적 가치관인 신중함, 경건함, 박애심 등은 이제 더 이상 아리따운 처녀가 아니라 심술과 까다로움만 남은 노처녀로 변했다(*Mosses from an Old Manse* 192-93)고 함으로써 사회변화의 필연성을 인정한다. 반면 당시 급진적 사회개혁의 기치를 든 초월주의자에 대해선, 이 독일 출신의 거대한 자의 실체는 자신을 포함해 아무도 묘사할 수 없는 불균형한 “안개와 어렴풋함의 무더기”(197) 같다고 비꼴으로써 혁명적 변화에 대한 그들의 과욕을 경계했다. 작가가 실제 Brook Farm에서 경험했던 초월주의자들의 실험과 이의 실패가 그로 하여금 더욱 이러한 급진적 변화에 대해 거부반응을 일으키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Hawthorne이 미국사회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무엇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이러한 이상사회 실현에 대한 환상을 지녔던 초월주의자들의 움직임보다도 사회가 물질주의로 급격하게 경도되어가는 흐름이었던 듯하다. 이 작품의 주인공이 순례 여행에서 가장 큰 위기를 겪는 부분은 그가 허영의 도시(city of Vanity)에 도착했을 때 잠시 물질적 유혹에 빠져 천국의 도시(Celestial City)로의 여행을 중단하게 되는 부분이다. 천국보다 더 좋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곳의 매력을 화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Indeed, such are the charms

of the place, that people often affirm it to be the true and only heaven; stoutly contending that there is no other, that those who seek further are mere dreamers, and that, if the fabled brightness of the Celestial City lay but a bare mile beyond the gates of Vanity, they would not be fools enough to go thither”(197-98). 그러나 주인공은 이후 도착한 순례자들의 따끔한 충고에 과감하게 다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산업과 경제의 변영이 최상의 목표인 양 설정하고 나아가는 당대 미국의 모습이 겉으로는 사회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인 이상사회로의 진로는 아니라는 작가의 믿음을 피력한다. 또한 Hawthorne이 오랜 영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던 시점에 미국은 노예제에 대해 여론이 찬반으로 갈려 사회가 한창 불안하던 시기였는데, 그는 이 악법마저도 혁명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에 정한 시기에 일어나야 할 변화라고 믿었던 것처럼(Bell 369), 그는 사회의 패러다임이 일시에 혁명적으로 바뀌기보다는 인본을 거슬리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스럽게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랐던 것이다.

III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들은 세계의 질서와 가치관, 과학의 발전 등에 있어서 변화의 속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Hawthorne이 살던 19세기 중엽 미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겪던 사회의 변화는 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의 시계바늘과 사회 변화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였던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농업을 중심으로 청교도 지도자들의 종교적 가치관과 정신이 지배하던 사회가 산업화의 과정 속에 대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구조로 급격히 옮겨가는 과정은 Hawthorne을 비롯한 미국인들에게는 쉽게 감내할 수 없었던 충격적 변화였을 것이다. 위의 단편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awthorne은 당대의 격변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 과거 청교도들의 역사적 공과를 뒤돌아봄으로써 당대인들이 겪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역사적 거울로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청교도들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그들의 경직된 역사관 및 도덕관으로 인해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이 떨어졌고 그것이 그들의 사회에 여러 내적 모순을 일으키고 구성원간의 혹은 이질적 집단과의 갈등을 야기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과거로부터 내려온 가치관이나 도덕률, 사회체제가 어느 한 편으로부터 이의 제기나 문제점 없이 오랫동안 유지돼왔다고 해서 기존질서를 당연히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유지, 보존하려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믿었다. 그의 세대에 이루어지는 사회체제와 가치관의 변화를 목격하고 사회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는 민중들의 대두를 지켜본 그는 사회를 이끌어왔던 지도층이나 기득권층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심지어 일부 작품 속에서 경직된 가치관으로 인해 내적 모순을 안고 개인의 사고의 자유와 사생활을 억압하는 기득권층의 횡포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이 대두하는 세대를 위해 과거의 세대와 가치관이 일시에 일소되는 혁명적 사회를 꿈꾸어보기도 했다. 이런 그의 생각은 *The Scarlet Letter*에서 Hester Prynne이 청교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변방 숲 속에 살면서 가부장적인 사회의 전도와 여성 중심의 사회를 꿈꾸는 데에서나, *The House of the Seven Gables*에서 Holgrave가 민중 중심의 새로운 사회의 등장 필연성과 과거의 일소를 주장하는 데에서, 그리고 *The Marble Faun*에서 유럽에 체제하는 미국인의 묘사를 통해 현재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와 부담을 일시에 제거하는 것이 후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화자의 목소리 등에서 부분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그렇다고 해서 Hawthorne이 혁명적 사회변혁 쪽에 찬성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The Blithedale Romance*의 Hollingsworth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지나치게 목표의식에 사로잡혀 인위적 사회개선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는 개인적 이기주의와 공명심에 빠져들어 개인과 사회에 모두 위험이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인식했다. 죄의 본질을 찾아 구도의 여행을 떠났다가 그것이 결국 자신의 내부에 있음을 알고 귀향했던 “Ethan Brand”의 주인공처럼, Hawthorne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용서할 수 없는 죄(the Unpardonable Sin)”를 타인이 아닌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믿었던 작가는, 식민지

시절 청교도들에게서 강한 자기의존 의식과 이에 따르는 편협함과 가혹함 등 양면성을 모두 보았다. Swann의 표현대로, Hawthorne은 청교도들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들이 “필연적인, 심지어 불가피한, 비극적 행동”이지만 “악의 종말, 타락한 역사의 종말은 아니라고”(5) 본 것이다. 급진적 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중도적 입장을 취한 작가는 과거 청교도들의 역사 기록에 있어서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긍정적인 면만을 보기보다는 그 공과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지니고 독자들에게 제시했음을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단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양대)

인 용 문 헌

- Ash, Scott. “Rereading Antagonism As Sibling Rivalry: the Hawthorne/Fuller Dynamic.” *ATQ* 9.4 (1997): 313-31.
- Bell, Millicent. “*The Marble Faun* and the Waste of History.” *The Southern Review* 35.2 (1999): 354-70.
- Bloom, Harold, ed. and intro. *Modern Critical Views: Nathaniel Hawthorne*. New York: Chelsea-Main Line, 1986.
- Bush, Harold K., Jr. “Re-Inventing the Puritan Fathers: George Bancroft, Nathaniel Hawthorne, and the Birth of Endicott’s Ghost.” *ATQ* 9.2 (June 1995): 131-50.
- Crews, Frederick. “The Legacy of Salem: Demonology for an Age of Science.” *Skeptic* 5.1 (1997): 36-44.
- Easterley, Joan Elizabeth. “Lachrymal Imagery in Hawthorne’s ‘Young Goodman Brown’.” *Studies in Short Fiction* 28.3 (Summer 1991): 339-43.
- Foeller-Pituch, Elzbieta. “Ambiguous Heritage: Classical Myths in the Works of

Nineteenth-Century American Wri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Classical Tradition* 1.3 (Winter 1995): 98-108.

Hawthorne, Nathaniel. *Mosses from an Old Manse*. Vol. 10 of *The Centenary Edition of the Works of Nathaniel Hawthorne*. 18 vols. Columbus: Ohio State UP, 1962-87.

---. *Snow-Image and Uncollected Tales*. Vol. 11 of *The Centenary Edition*.

---. *Twice-Told Tales*. Vol. 9 of *The Centenary Edition*.

Hoffman, Daniel G. “‘The Maypole of Merry Mount’ and the Folklore of Love.” From *Form and Fable in American Fiction*. New York: Oxford UP, 1961. Bloom 41-58.

Levine, Robert S. *Conspiracy and Romance: Studies in Brockden Brown, Cooper, Hawthorne, and Melville*. New York: Cambridge UP, 1989.

Mendilow, Jonathan. “Nathaniel Hawthorne and Conservatism’s ‘Night of Ambiguity’.” *Political Theory* 23.1 (February 1995): 128-36.

Swann, Charles. *Nathaniel Hawthorne: Tradition and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P, 1991.



ABSTRACT

Hawthorne's Views on History and Social Changes:
Centering on His Short Stories

Young Soo Kim

As is widely known, Nathaniel Hawthorne showed his primary concern about earlier American history, especially that of the Puritans, in his major works. Through his historical stories about Puritans, he attempted to analyze and interpret the nature and various modes of acceptance and influence of human sins on individuals and their community. His obsession with Puritans and human sins is closely interrelated with the state of his contemporary American society of the mid-nineteenth century, when it underwent a rapid movement from that of traditional agriculture to that of industrial revolution and scientific progress.

Hawthorne found that his contemporaries and his Puritan ancestors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had lived in a stable society with fixed values but were later challenged by the new demand for social paradigmatic change due to either political or economic reasons. Puritans were thrown into confusion when their society based on their pursuit for religious freedom and moral codes were challenged by others's need for religious/ideological freedom of individuals or by the struggle between the colonials and British government; while his contemporaries had difficulty in adapting themselves to a new environment where industrial development and scientific progresses asked them to prepare for a new society where the masses assume the leadership from the few selected.

John Endicott in "Endicott and the Red Cross" and "The May-Pole of Merry

Mount” is the typical Puritan leader who rules his community with his firm and austere moral standards and punishes the violators relentlessly. But he is also presented as a patriot who stands against dictatorial rule of England. The irony is that he vindicates the religious or political freedom of Puritans while he persecutes Quakers or Merry Mounters who follows their own belief or conscience. Hawthorne’s pangs of conscience about his ancestors’s persecution of Quakers are vividly revealed in his early work “The Gentle Boy,” and his poignant criticism on bigoted faith is also found in “The Man of Adamant” or “Young Goodman Brown.”

Unlike these accusations on the biased Puritans, Hawthorne finds hope in Robin of “My Kinsman, Major Molineux” that one can overcome the intimidating advent of a new society through one’s own will to adapt oneself to a new milieu. Though his hope of relying on his influential uncle for his future is frustrated by the colonial riot, he is cunning enough to adapt himself to a new social change and, in addition, is lucky enough to be advised by a kindly gentleman. While Hawthorne was convinced of America’s move towards egalitarian society based on democracy, he was hesitant to approve of the rapid and hasty ways in accepting the changes. In an allegory “The Celestial Railroad,” he disapproves of the radical attempt to change social values and an inclination to materialism relying on economic boom of his time. He believed that social changes should occur gradually through discreet methods, which is expressed well in his historical stories.

- 주제어 : Hawthorne, *Twice-Told Tales*, 역사, 청교도, 식민지시대, 사회개혁,

KCS I